

경제

“일신방직 옆 아파트 건축허가 부당”

소음시설 거리 규정 안 지켜 주민 고통  
광주시 민원 받아들여 특별감사 나서

광주시가 일신방직 인근 아파트의 건축허가가 부당하다며 특별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 2일 광주 시청에서 열린 ‘시민과 만남의 날’ 행사에서 광주시 북구 임동 일신방직 인근 A 아파트(574세대) 주민들과 만나 “공장의 부속시설도 공장 건물이다”며 “아파트 신축을 허가

할 때는 공장과의 거리를 최소 50m 이상 뒤야하는데, 부속시설 외벽으로부터 42m 떨어진 곳에 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 같은 행정행위를 한 북구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A 아파트 주민들은 “북구청

에서 일신방직과 아파트 외벽까지의 거리를 51.5m로 측정해 아파트 허가를 내줬지만, 실제로는 42m에 불과해 소음공해를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는 ‘소음배출시설(공장)과 아파트 간에는 최소 50m 거리를 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아파트에서 42m 떨어진 곳에 일신방직의 사무실과 냉방기 시설, 화장실, 창고 등이 들어 있다. 또 이 건물 위에는 가로 세로 1.5m 정도 되

는 환풍기 3기가 설치돼 있는데, A 아파트 주민들은 이 실외기에서 심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북구청은 지난 2005년 3월 실외기 등이 설치된 건물에 대해 공장건물이 아닌 단순 부속건물로 보고 A 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강 시장은 실외기 시설에 대해서는 일신방직측에 소음 저감장치 설치를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으며, 아파트와 일신방직 사이의 방음벽 설치 민원에 대해서도 방음벽 설치 검토를 주문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광주은행 남도 문화체험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최근 순천만 생태공원과 보성 녹차밭에서 광주은행 우수 임직원 100여명과 함께 ‘CEO와 함께하는 순천만 문화체험’ 행사를 가졌다. <광주은행 제공>

금호타이어 ‘에코윙S’

2년 연속 ‘올해의 녹색상품’

녹색구매네트워크 선정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는 4월 자사의 친환경 타이어 ‘에코윙S’가 2년 연속 ‘올해의 녹색상품’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의 녹색상품’은 녹색구매네트워크가 친환경상품 시장의 활성화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09년 제정한 것으로, 소비자평가단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후보상품을 추천하고 최종투표를 통해 선정한다. 녹색성장위원회·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후원하고 있다.



타이어는 1등급 연비 효율과 주행 안전 성능을 갖춘 친환경 타이어로, 금호타이어가 4년간 약 500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만들었다. ‘에코윙S’가 장착된 YF쏘나타로 1년간 2만km를 주행하면 일반 타이어보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약 272kg(교통신용연료비 기준) 줄 수 있다. 이는 타이어 교체 기준(3년)으로 144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라고 금호타이어는 설명했다. 또 등급 최고 수준의 연비로, 연간 약 23만원(ℓ 당 2000원 기준)을 절감할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다가구·다중주택도 발코니 확장 허용

앞으로 다가구·다중주택의 모든 발코니를 거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그러나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공동주택처럼 사용되는 것을 고려해 개수 제한을 없애고 모든 가구의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도록 개설했다. 이번 조치로 전국의 다가구주택 50만8651동, 다중주택 6868동 등 총 51만1500여동의 발코니 확장과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 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전 가구에 걸쳐 발코니의

구조변경이 가능했지만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은 발코니 확장 개수를 2개로 제한해왔다. 국토부는 그러나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공동주택처럼 사용되는 것을 고려해 개수 제한을 없애고 모든 가구의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도록 개설했다. 이번 조치로 전국의 다가구주택 50만8651동, 다중주택 6868동 등 총 51만1500여동의 발코니 확장과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 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전 가구에 걸쳐 발코니의

공정거래조정원 광주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 ‘하도급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지방 순회 회의를 지난 2일 오후 북구 오톨동 정주광주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번 지방순회 회의는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제도를 지방에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공정거래·가맹사업거래·하도급거래·대규모 유통업거래·약관분쟁조정협의회 등을 운영 중이다. 이번 열린 ‘하도급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의 분쟁을 조정하는 협의회로 기계제조업자의 추가제작비 미지급 관련 분쟁 사건 등 총 2건의 2건 등 모두 41건을 처리

했다. 조정원은 을 들어 ▲공정거래 245건 ▲가맹사업 462건 ▲하도급 거래 295건 ▲대규모 유통업 거래 18건 등 모두 1020건을 사건을 처리했다. 한편 조정원은 이날 협의회와 함께 광주지역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제도 지방설명회’도 열었다. 김순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필요하다”며 “분쟁조정 제도가 많이 알려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효성, 사회공헌활동 대폭 강화

창립 46주년 기념식...그림 봉사단 창단

효성이 창립 46주년을 맞아 사회공헌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효성은 지난 2일 서울 광덕동 본사에서 창립 46주년 기념식을 열고, 현행 사회공헌활동 체계를 대폭 확대해 그림 봉사단을 창단하겠다고 밝혔다. 효성은 본사와 각 지방 사업장에서 사내 동아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7개의 봉사팀을 하나로 묶어 그림 차원의 ‘효성사회봉사단’(가칭)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림 봉사단 창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전국적인 사회공헌활동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각 지역 사업장에서는 ‘1사 1산(山)’, ‘1사 1하천(河川)’, ‘1사 1촌(村)’을 토대로 환경 정화, 다문화

예정이다. 6·25 참전 국가유공자들의 낡은 집을 새롭게 단장해주는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과 미혼·자폐·유기견 등을 돕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 제공 및 사회적기업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회공헌과 문화예술 활동을 접목한 ‘효성 컬처시리즈’, 발달장애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 도입, 다문화가정 어린이들로 구성된 ‘세종 꿈나무오케스트라’ 지원하고, 임직원들이 전공 분야를 살려 학생들의 교육을 돕는 ‘재능기부’도 검토 중이다. 효성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할

Portrait of a man with text: 가족 지원, 장학금 전달 등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효성은 기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토대에 기업과 정부·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창·사회적 에코시스템(CSE) 개념을 도입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이상은 효성 부회장은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도 더욱 노력을 함께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 문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기제품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강화 운용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전기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이 엄격해진다. 지식경제부는 전기제품의 에너지 사용량 기준을 제시하는 ‘효율관리기재 운용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TV, 시스템 에어컨(EHP), 전기발열, 김치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상업용 냉장고 등 7가지 전기제품의 소비효율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기준을 현재 출시되는 제품에 적용하면 TV 1등급이 91%에서 5%로, EHP 1등급은 93%에서 3%로 각각 축소된다. 나머지 제품군은 30~61%인 1등급 제품의 비율이 1~8%로 줄어든다. 대기전력 기준도 TV는 1W에서 0.5W로, 발열은 3W에서 2W로, 식기세척기는 1W에서 0.5W로 엄격해진다. 제품이 커지는 추세를 반영해 드럼세탁기, 일반형 세탁기, 김치냉장고

의 효율관리 대상 용량도 25~66.7%로 확대한다. 드럼·일반형 세탁기는 25kg 형까지, 김치냉장고는 300ℓ 들어까지 효율관리 대상이 된다. 이밖에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도시가스 사용량이 실제 사용환경에 들어맞도록 소비효율 측정방법을 개선한다. 올해 9월 전국의 모든 가로등을 켜는 데 사용한 전력량과 비슷한 규모다. /연합뉴스

Table with 2 columns: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Rows show lottery results for numbers 14, 23, 30, 32, 34, 38 and 6.

Large advertisement for Lotte Travel (롯데제이티비)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flight deals, and vacation options. Includes sections for '무안출발 북경', '광주출발 일본 온천여행', '무안출발 방콕전세기', and various international flight deals to Europe, Asia, and the US.